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

▶ **3회 예고**
보름날 밤, 다르마는 빠딸리뿌뜨라 궁으로 가고자 강가강 나루터에서 부모와 이별한다. 그러나 브라흐민은 딸 다르마를 못잊어 함께 자나사나를 따라나선다. 브라흐민은 밤새 딸의 앞날을 위해 기도한다.



자나사나의 예언

석양은 바로 지지 않았다. 강가강 건너편 너른 모래밭 위를 굴렁쇠처럼 구를 듯 한동안 떠 있었다. 새떼가 석양을 비껴 숲속으로 점점이 날아갔다. 아지비카교 수행자 자나사나는 석양을 등지고 나타났다. 석양 때문에 자나사나의 마르고 작은 몸집이 도드라졌다. 몸집에 걸친 도티 옷자락이 펄럭였다. 브라흐민이 잰걸음으로 나가 자나사나를 맞아들였다.

자나사나는 발 앞에 떨어진 붉은 꽃잎을 피해 다가왔다. 발걸음을 호흡하듯 조심스럽게 떼는 것으로 보아 신중한 수행자임이 분명했다. 말투도 호흡에 따라 느리고 조용했다.

"나의 친구 빵갈라바뜨사는 떠나고 없소."

"알고 있다오. 빠딸리뿌뜨라로 가시고 없다는 것을."

베란다 앞에는 다르마와 브라흐민의 아내가 나와 자나사나를 맞이했다. 다르마가 한 걸음 먼저 나아가 자나사나 목에 한낮에 만든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방문을 환영한다는 의식이었다. 그러자 브라흐민의 아내가 강물이 담긴 항아리를 내밀면서 합장한 뒤 자나사나의 발에 입 맞추는 시늉을 했다.

"나마스떼!"

자나사나도 나직한 소리로 인사했다. '당신 안의 신에게 경배를 드린다.'는 뜻이었다. 자나사나가 항아리의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사이 브라흐민의 아내는 베란다로 꺼내온 식탁에 음식을 날랐다. 다르마가 흰 수건을 들고 자나사나 옆에 서 있는 동안 브라흐민은 휘파람을 불었다. 자나사나를 환영하는 휘파람이었다. 휘파람은 브라흐민의 특기이기도 했다. 브라흐민은 기분이 좋아지면 어느 자리에서나 휘파람 소리를 내고 콧노래를 불렀다.

식탁에는 목을 축이는 코코넛 물이 먼저 나왔다. 브라흐민이 거친 밀로 만든 짜파티를 접시에 날랐다. 누런 빛깔의 국물인 카레도 나왔다. 브라흐민 아내가 샛노란 빛깔의 강황, 후추, 계핏가루, 생강, 마늘 등을 넣고 조금 전에 만들었으므로 모락모락 김이 났다.

자나사나는 대나무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아지비카교 주문을 외웠다. 그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브라흐민 식구들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그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자나사나가 눈을 뜨고 꽃목걸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브라흐민 아내가 조급하게 말했다.

"다르마야, 너는 여기 앉거라."

브라흐민 아내가 자나사나 맞은편 대나무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제야 다르마가 식탁 귀퉁이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자나사나가 다시 말했다.

"부인,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르마를 다 보았어요. 그러니 두 분이 맞은편 자리에 그대로 앉으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브라흐민 아내가 더듬거리며 대나무의자를 식탁 쪽으로 끌어당기며 앉았다. 브라흐민은 아내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웃고만 있었다. 자나사나가 염소 같은 검은 수염을 가지런히 쓸면서 말했다.

"나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르마의 운명을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르마의 운명을 먼저 이야기하겠소."

"아내가 오후 내내 준비한 음식이오. 시장하실 테니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셔도 되오."

브라흐민이 손사래를 치며 말하자, 그의 아내가 자나사나에게 고개를 흔들며 합장했다.

"구루시여, 편하실 대로 말씀하세요. 저희 부부 마음이 조급했나 봐요."

다르마는 자신이 준비한 커리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자 섭섭했다. 모두가 꼼짝을 않고 있기 때문인지 짜파티의 구수한 냄새가 콧속을 더욱 자극했다. 강바람에 정원의 꽃향기도 언뜻언뜻 실려 왔다. 자나사나가 입을 열었다. 그의 수염이 날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다르마는 빠딸리뿌뜨라 궁 안에서 살 운명이오."

자나사나의 한 마디에 브라흐민 식구들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특히 다르마는 비명처럼 한 마디 했다.

"구루시여, 저는 짬빠성을 떠나기 싫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브라흐민 아내는 합장한 채 자나사나의 입을 주시했다. 브라흐민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궁에서 누구와 산단 말이오?"

"궁의 주인과 살 운명이오. 축하드리오."

이번에는 자나사나가 일어나더니 다르마의 얼굴을 그윽하게 쳐다보며 합장했다. 브라흐민이 다시 물었다.

"대왕님과 살 운명이란 말이오?"

"그렇소. 왕비가 될 운명이오."

브라흐민 아내가 울상이 되어 애원하듯 말했다.

"다르마야, 넌 빠딸리뿌뜨라 궁으로 가야 행복해지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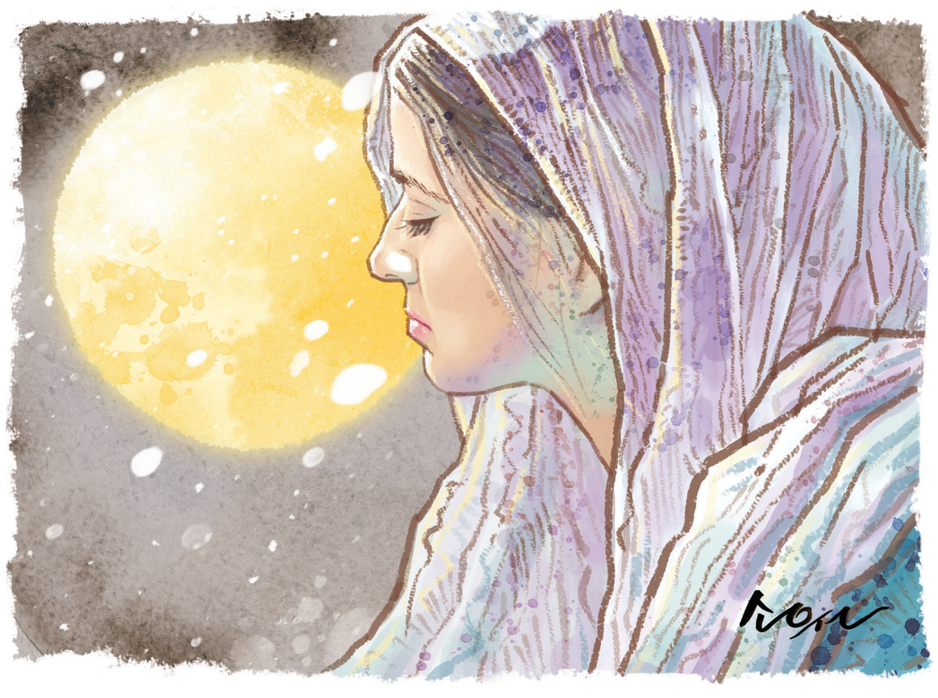
"난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브라흐민은 아무 말도 못했다.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자나사나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했다. 날이 시나브로 어두워졌다. 브라흐민 아내는 베란다 양쪽 벽에 걸린 호롱불을 켰다. 두 개의 호롱불빛이 밖에서 밀려오는 초저녁의 어둠과 섞이면서 신비스런 분위기를 자아냈다. 식탁에 마주앉은 사람들도 방금 전의 모습과 달리 보였다. 화병에 꽂힌 파파벨라가 작은 새처럼 '파파벨라 파파벨라!' 하고 소리를 내는 듯했다. 자나사나가 말했다.

"무얼 망설이시오. 다르마가 빠딸리뿌뜨라로 가게 되면 나의 친구 빵갈라바뜨사가 도와줄 것이오."

"구루시여, 다르마의 앞날을 더 이야기해주시오."

자나사나는 갑자기 다르마가 마치 왕후라도 당장 된 듯 예를 갖추었다. 브라흐민 부부를 바라볼 때와 달리 다르마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약간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다르마가 궁으로 들어가면 왕비와 후궁들의 견제가 심할 것이오. 감수해야만 하지요."

"구루시여, 왕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열다섯 명이오."

"그렇다면 다르마가 열여섯 번째가 된다는 말이오?"

"대왕의 총애를 받고자 다르마를 견제하겠지만 다르마는 결국 왕비가 되고 말 것이오."

다르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브라흐민의 아내도 물었다.

"왕자가 없어서 새 왕비를 맞이하는 것입니까?"

"아니오. 정식 왕비는 물론 후궁이 낳은 왕자까지 아흔아홉 명이오."

브라흐민이 낙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왕자가 아흔아홉 명인데 또 왕비를 맞아들인다는 말이오?"

"내가 볼 때 아흔아홉 명의 왕자들은 모두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운명이오."

"그럼, 누가 왕위에 오르는 왕자란 말이오?"

자나사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비밀을 토로하듯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없소. 그들은 모두 죽을 운명이오."

브라흐민 식구들은 또 놀랐다. 아흔아홉 명의 왕자들이 죽을 운명이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로 모두 죽는다면 마우리아왕조의 크나큰 비극이었다. 자나사나도 발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누설한 듯 움찔했다. 브라흐민 식구들과 자나사나는 한 동안 침묵했다. 침묵하는 순간에도 브라흐민은 다르마의 운명을 헤아리는 듯했다. 눈꺼풀을 파르르 떨면서 중얼거렸다.

"구루시여, 그렇다면 다르마가 낳을 대왕의 아들도 죽을 운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나사나의 말에 브라흐민 식구들 모두가 안도했다. 마치 사지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같았다. 브라흐민 아내 얼굴에는 자애로운 기운이 돌았고, 브라흐민 눈에는 기쁨이 가득 찼다. 자나사나가 말했다.

"다르마는 두 명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오! 인드라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브라흐민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호롱불빛에 눈물이 반짝였다. 브라흐민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구루시여, 오늘 밤 저는 더 없이 행복하오.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최고의 선물이지요. 그대의 손자는 왕위를 이어받는 대왕이 될 것이오."

"다르마야, 어서 구루께 경배를 드려라."

"아니오. 경배는 내가 드려야지요. 다르마가 왕비로 점지돼 있기 때문이오."

자나사나는 조용히 일어나 다르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더니 다르마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브라흐민 부부도 무엇에 홀린 듯 다르마 앞으로 가 자나사나와 같이 행동했다. 다르마가 어리둥절해 하며 말했다.

"저는 왕비가 아니예요!"

"다르마야, 언젠가는 왕비가 된다고 구루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미리 네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틀린 행동은 아니다."

"아버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란 말예요."

자나사나도 한 마디 했다.

"다르마여, 그대는 왕비가 될 운명인 데다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까지 낳을 분이니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오."

브라흐민 아내까지 거들었다.

"다르마야, 나는 행복하다. 네 발에 입을 맞출 생각을 언제 해보았겠느냐. 이런 날이 올 줄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여보 당신도 행복하지요?"

"행복하고 말고요. 오늘 밤 다르마가 우릴 기쁘게 해주는구려."

비로소 자나사나는 짜파티를 찢어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짜파티가 식어 딱딱해지기는 했지만 구수한 맛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자나사나는 짜파티를 커리에 묻히지 않고 먹었다. 식은 카레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브라흐민 부부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기쁨이 충만해 배가 불렀다. 다르마는 여느 때처럼 매운 칠리소스를 밥 위에 얹어 우아하게 먹었다.

브라흐민이 콧노래를 부르며 화덕에서 짜이를 만들었다. 홍차에 소젖과 사탕수수 물을 넣고 끓인 짜이는 달달했다. 수드라 여인들이 만든 토기잔은 시장에서 사온 것이었다. 브라흐민은 토기잔을 식탁 위에 여러 개 놓고 짜이를 따랐다. 당연히 첫잔은 자나사나에게 갔다. 짜이를 마신 자나사나는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기를 보시오. 보름달이 떴소. 이런 밤에 짜이를 마시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보름달이 우리의 행복을 시샘하는 것 같소. 하하하."

브라흐민이 유쾌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브라흐민 아내가 말했다.

"구루시여. 그래도 저는 다르마의 앞날이 불안해요. 빠딸리뿌뜨라 궁에 갔을 때 왕비들이 우리 다르마를 못살게 굴면 어떡하지요?"

"행운의 여신은 불행의 여신과 늘 함께 하지요. 그러니 염려할 것은 없어요. 시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요."

자나사나는 짜이를 다 마시고 일어나면서 한 마디 했다.

"다르마 왕비는 두 아들을 낳을 것이오. 한 아들은 대왕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아들은 수행자가 될 것이오. 그러니 다르마는 왕도와 법도를 보게 되는 유일한 왕비가 될 것이오."

자나사나가 툭 던진 한 마디는 한 왕자가 권력의 길을 간다면, 또 다른 왕자는 진리의 길을 간다는 말이었다. 브라흐민 부부는 자나사나가 어둔 숲 저편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합장을 했다. 강바람이 조금 세게 불어왔다. 보름달빛에 희끗거리며 날리는 것은 부겐빌리아 흰 꽃들이었다. 바람결이 다르마의 코끝을 간질였다. 바람결에는 꽃향기가 묻어 있었다. 다르마는 보름달빛과 바람결에 헐떡이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계속〉

靈영通통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하신 분. (미륵보살 〈구,돌할머니〉)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고질병 등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을 전수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 총무원장 동진 합장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조계종
남 장 사
대종사 정강성웅
주 지 종호
사부대중일동

•영산회괘불도보물 제2007호
지정 : 야외 불교행사인 영산재에 사용된 불화
•범패 최초 전래지
•상주시 종합 사회복지관 부설 보광어린이집 운영



경북 상주시 남장1길 259-22
054-534-6331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